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장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孫井植 法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 568-6651~2
등록일: 1988년2월19일 568-5595~6
FAX. 568-6653

1·3종漁港別 예산 配定 2종항에도 385億 지원

해양수산부 '97어항시설공사 설계 착수

해양수산부는 최근 올해 시행할 어항건설사업을 위해 항별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설계작업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1·3종 89개 어항중 미완공 33개 항에 대해 92년 이전에 착공하여 계속 개발중에 있는 20개 항을 98년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하여 농특예산 8백1억5천6백만원을 집중배정하고, 93년 이후에 착공하여 개발중인 13개 항은 2천년까지 완공목표로 2백6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 완공되었으나 어선수 등 항세가 신장되어 정비 확장이 시급한 항과 시설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개·보수가 긴요한 23개 항에 대해서도 어항기능 제고를 위하여 2백67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보수 보강

및 정비확장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개발 관리하는 제2종어항에 대해서도

해서도 3백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97년도 제1·3종어항 항별 및 제2종어항 시·도별 예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항명	사업비	구분	항명	사업비
92년이전 착공항	20개항	80,156	유지·보강항	23개항	26,734
	수산	5,500		초도	3,000
	안목	5,500		남도	2,200
	축산	3,500		구조라	700
	현포	5,500		삼덕	2,200
	대변	5,000		매물도	2,400
	모항	3,500		광암	2,200
	홍원	2,000		23개항	26,734
	어청도	5,500		대전(강)	200
	말도	3,000		금진	490
	수품	4,156		죽변	580
	소흑산도	6,500		대전(경)	1,500
	여서	5,500		강구	900
	사동(전)	2,000		양포	390
	시산	4,800		유천	1,500
	내남	1,200		저동	2,500
	물건	4,000		방어진	1,500
다대다포	2,500	안흥	1,350		
지세포	3,500	오천	1,000		
도두	3,500	서암	1,270		
김녕	3,500	계마	2,000		
		추자	500		
		여란진	700		
		청산도	800		
		녹동	2,224		
		돌산	500		
		미조	1,760		
		신수	1,230		
		맥전포	1,340		
		외포	1,000		
		신랑	1,500		
93년이후 착공항	13개항	26,400			
	오산	2,200			
	구산	1,500			
	울도	1,300			
	전장포	1,500			
	보옥	2,400			
	풍남	2,400			
득암	2,400				

인천·평택항 사이 港灣 검토 용역사업 45件 집행計劃 確定

해양수산부

인천항과 평택항 사이에 대규모 신항만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또 광양지역의 종합항만기능 수행을 위한 광양항 광역기본계획이 올해안에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5건의 올해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중 43건을 상반기중에 집중 발주키로 했다. 이들 용역사업에는 모두 4백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인천항의 체선해소를 위해 송도지역을 포함, 인천항과 평택항 사이에 대규모 신항만 건설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올해부터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또 광양지역의 종합항만기능수립을 위해 현재 광양항을 개발할 경우 부두하역기능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하역기능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확보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억원을 들여 광양항 종합항만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75억원으로 정부

가 추진중인 7대 신항만 건설사업중 올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새만금신항과 보령신항의 방파제와 안벽 등 정부 사업부문에 대한 실시계획작업을 착수,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建設관련 17개法 개정施行 施工能力공시제 導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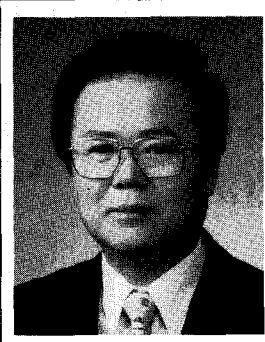
정부는 건설업 등 건설관련 17개 법률을 개정 공포, 지난 1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내용 3면에 상보>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우선 건설업법의 경우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 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제반사항은 이 법을 따르도록 했으며 건설업 면허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수시로 면허를 발급토록 했다.

또 시공능력에 따라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공능력 공시제 도입했으며 가스시설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켰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를 신설, 수급사업자 보호를 확대하였으며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시정조치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전기통신업계의 경쟁환경조성을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허가에 관한 사전공고제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이나 정보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가덕도신항만건설에 민자8조2천억원투입 부산가덕신항만(주)지정

정부는 가덕도신항만 사업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칭 부산가덕항만(주)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를 신청한 부산가덕항만(주)의 사업계획서를 해운산업연구원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지정에 필요한 60% 이상의 요건을 충족, 우선협상자로 지정했다. 사업신청자인 부산가덕항만(주)은 사업계획서에서 총 8조2천3백69억원의 민자사업비를 투자, 북컨테이너 터미널에 14개 선석과 남컨테이너 터미널에 10개 선석 등 모두 24개 선석 규모의 안벽 7.5km를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孫井植 韓國漁港協會長

어항인 여러분! 병자년이 지나고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아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 그리고 국내경제의 하강국면 등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준 그런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해양수산부의 신설 발족은 우리 어항인에게 신선한 청량제가 되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해준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가져본 우리의 부처였기에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의 발족은 그동안 단순히 어선장박 정도의 어항개념을 어촌의 핵으로서, 또는 중심지로서 밝고 쾌적한 이상적인 어항어촌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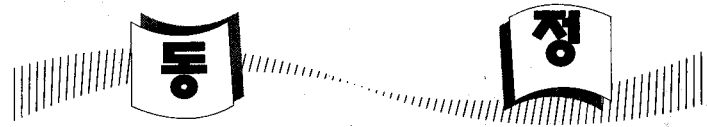
새해를 漁港漁村 건설의 元年으로 삼자

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어찌보면 이같은 우리의 기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해로 단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수산물수입 전면개방이라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21세기의 이상적인 어항어촌 건설의 청사진이 열리는 그런 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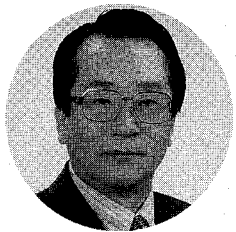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바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우리 한국어항협회는 새해 기본방향을 다음 4가지로 선정했습니다. 첫째, 21세기 새로운 어항어촌 미래상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항어촌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위임 위탁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어항인의 총의를 결집하여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을 추진하기엔 아직 저희 협회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항인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뜨거운 협조가 없으면 쉽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어항개발의 방향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개발의 연관효과와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을 고려할 때, 새해 우리 어항인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어항인 모두는 그 슬한 세월을 모진 풍파속에서도 이겨내 오늘의 어항사를 이룩한 주역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해양수산부라는 천군만마의 응원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절대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항상 고통을 딛고 이겨왔고, 또 분명히 이만한 정도의 시련은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새해는 어항어촌 건설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의 기정과 하시는 일에 만운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協會 中心으로 渾然一體 돼야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년인사회 개최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3일 동작동국립묘지를 참배, 4일에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

▲손정식 한국어합회장은 1월3일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 4일에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14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수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월3일 임직원들과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 4일에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9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어민사랑기금 3천5백만원을 전달, 14일에는 수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1월13일 본부회의실에서 부서장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지부장회의를 주재.

▲최상욱 남화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3일 대한체육회 97년도 국가대표선수 훈련 개최식에 참석, 14일에는 문화원도지회연합회 이사회에 참석, 17일에는 광주광역시 사립학교법인 이사장회의에 참석, 20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화원도지회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21일에는 대한검도회 이사회에 참석, 22일에는 대한정구협회가 주관한 정구인의밤 행사에 참석.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4일 대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수산인 신년교례회가 지난 1월14일 수협중앙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일본 후쿠오카지역 산업시찰에 참석, 10일에는 광주농고총동창회 이사회를 개최.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에 참석, 7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 모임에 참석, 14일에는 신한국당 전남도지부 운영위원회에 참석, 21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간담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3일 한국건설진흥회 신년하례식에 참석, 6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16일에는 21세기경영인클럽 초청강연에 참석, 21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월6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1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충북협회 신년교례회를 개최.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

회사 회장은 1월2일 애월청년회의소 신년하례식에 참석, 11일에는 제주대학적십자 신년하례식에 참석, 25일에는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신축 기념행사에 참석, 이어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초청강연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월16일 진도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월7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신년인사회 및 신규회원 환영대회에 참석, 이어 제주주재 일본국총영사관 개관기념식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월17일 삼천포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제1차관보 전승규(기획관리실장) △제2차관보 박규석(국제협력관) △기획관리실장 백옥인(해운선박국장) △해양정책실정책심의관 김성수(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강신관(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감사관 이용숙(유통기획과장) △국제협력관 박재영(해양정책실정책심의관) △해운선박국장 민병성(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수산물유통국장 최낙정(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 조세연(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검사소장 최재양(어업인복지과장)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장 조우연(수산진흥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권수(국립해양조사원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이용우(총무과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김상열(수산물유통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건 박희열(해양수산공무원교

육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과건 박원경(해양수산부) △국방대학원과건 정이기(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총무과장 김성규(의항과장) <이상 1월 7일자>.

△기획관리실 전산통계담당관 박균홍 △해양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신평식 △"해양개발과장 우예종 △"해양환경과장 천인봉 △해운선박국 해운정책과장 김하진 △"의항과장 한준규 △"내항과장 이광로 △항무국 항만운영과장 박정천 △"선원과장 김창남 △수산진흥국 수산정책과장 김영규 △"어업인복지과장 서상범 △수산자원국 어업지도과장 박해용 △"양식과장 김종규 △"자원조사과장 박성욱 △"어장보전과장 나택균 △수산물유통국 유통기획과장 민병훈 △"수산기공과장 김민령 △국립수산물진흥원 연구기획과장 심호진 △"수산경제연구실장 기호준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김인기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장해련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김영환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 이진주 △항로표지기지창장 장맹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과장 김용화 △인천"총무과장 김명기△인천"해무과장 김웅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권성원 △목포"윤석정 △포항"김효곤 △제주" 송동은 △대산"송예용 △남해어항사무소장 정영재 △중앙해안심판원 행정실장 배계남 △세종연구소과장 최성춘 △국방대학원과건 문형근 △"순재학 △해양수산부 방기혁 △"정순석 △"진 수 △국립수산물진흥원 박동욱 <이상 1월 8일자>.

▲동화건설주식회사는 최근 김재우 전무이사를 대표이사로 발령했다.

▲이희수 전 수산청장은 1월 1일자로 한국원양어업협회

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받

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기타 원자재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전문건설업 이원화 세부규정 착수

업종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의 구분, 업종별 면허 또는 등록기준 조정,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허용범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구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전문건설업을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으로 구분키로 하고 공사의 규모와 시공기술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구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존업체에 미칠 영향과 시공능력평가제 등 관련제도의 적용문제를 고려키로 했다.

이와함께 면허와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공제조합의무출자제도와 기술자 및 장비보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규정으로는 전문건설

업종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의 구분, 업종별 면허 또는 등록기준 조정,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허용범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구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전문건설업을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으로 구분키로 하고 공사의 규모와 시공기술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구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존업체에 미칠 영향과 시공능력평가제 등 관련제도의 적용문제를 고려키로 했다.

이와함께 면허와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공제조합의무출자제도와 기술자 및 장비보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규정으로는 전문건설

업종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의 구분, 업종별 면허 또는 등록기준 조정,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허용범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구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전문건설업을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으로 구분키로 하고 공사의 규모와 시공기술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구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존업체에 미칠 영향과 시공능력평가제 등 관련제도의 적용문제를 고려키로 했다.

고문으로 취임했다. ▲임종국 전 해양수산부제2차관보는 1월22일자로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0-1번지 건우빌딩 7-8층, 전화번호:538-0236.

▲원강희(전 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장)씨의 장남 종식군은 1월 28일(화) 12시30분 여의도웨딩홀(여의도백화점 6층)에서 화족을 밝힌다.

▲송예용(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씨의 자택주소가 최근 서울시 성동구 행당2동 신동아아파트 4동 1503호로 변경됐다. 전화번호:296-8242.

▲박영철(전 수산청어항과)씨의 자택 전화번호가 (02)591-7060번으로 변경됐다.

▲조경환(전 수산청 어항과)씨의 자택주소가 최근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극동아파트 5동 1204호로 변경됐다.

▲공중덕씨는 최근 현대지리정보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처를 변경했다. 전화번호:(034)971-4881-2.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단체 ▲동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우)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차장) ▲박희열씨(해양수산부) ▲송예용씨(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종봉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

서귀포 앞바다에 海洋公園 건립

서귀포시 2006년까지 민자유치 휴양시설 조성

제주도 서귀포시가 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시립해양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범섬과 문섬 그리고 섬섬으로 둘러싸인 앞바다 해상 19.54km² 일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양공원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최근 공고, 제주도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해상공원 일대에 민자를 유치, 범섬과 문섬을 공원시설로 개발하고 섬섬에는 다이빙코스과 번지점프장, 해상터널 구름다리 스노클링장 헬리포트 수중전망대 등 위락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해상

공원에 관한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에 제주도의 승인을 거쳐 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달청 시장개방에 따른 조달절차 개선

입찰관련정보 '의무제공'

올 1월1일부터 개방대상이 되는 공사의 입찰공고 사항 중 발주기관, 입찰일자 및 계약의 주목적물 등 주요사항은 반드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약 공고된다.

조달청은 지난 1일부터 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조달절차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공원 대상지역은 서귀와 시흥 서호 동흥 토평 보목 호근 법환동 일대에 걸친 해상으로 현재 용도상 해변부로 미지정된 상태이다.

새로 마련된 조달절차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공고기간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으나 물품구매는 현행 1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대폭 연장되 구매에서 등을 통해 사전공고된 경우에는 24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0일까지 단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청은 또 입찰서 평가

등 조달과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는 1차적으로 조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기관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정경제원산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찰자가 낙찰자명,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낙찰되지 않은 이유 등 입찰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함께 협정적용물품 및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사유를 신설, 경쟁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와 응찰자가 있더라도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해 경쟁입찰에 의해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

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받

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기타 원자재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전문건설업 이원화 세부규정 착수

업종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의 구분, 업종별 면허 또는 등록기준 조정,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허용범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구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전문건설업을 면허업종과 등록업종으로 구분키로 하고 공사의 규모와 시공기술의 단순성 등을 고려해 구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존업체에 미칠 영향과 시공능력평가제 등 관련제도의 적용문제를 고려키로 했다.

이와함께 면허와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공제조합의무출자제도와 기술자 및 장비보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규정으로는 전문건설

漁港공사契約 分割發注 문제 解消

국가를당사자로... 시행령 68조중 '공구별' 삭제

漁港協會 건의 관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본문중 "단 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를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으로 하고, 동 조 제2호중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을 "분할시공함"로 개정됐다. 이는 한국어합협회가 지난

해 어항시공회원의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당국에 적극 건의한 바이다.

이에따라 어항공사가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분할발주가 불가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구별로 이뤄지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공구별'이라는 용어 삭제로 인하여 매년 공사계약시에 분할발주의 적용가능 여부 등 계약집행상의 혼란이 방지됐다.

군으로 계산, 1SDR에 1천1백66.421원이며 앞으로 2년간 사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58억3천만원 이상 정부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게 된다.

시공實績 시공能力따라 入札참가 資格 부여키로

국제입찰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시공능력, 경영상태 등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해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등급에 상응하는 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58억3천만원 미만 공사입찰시 지방업체 1개사 이상이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PQ공사와 턴키공사를 제외하고는 30대 그룹에 속하는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해 왔으나 대규모 기업집단간 공동도급 참여제한 규정을 폐지, 올해부터는 30대 재벌기업간에도

현행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한 제한구분성 운영방식과 유사한 이 제도는 도급한도액이 건설법 개정으로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어 국제입찰공사의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공사마다 자격을 심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물품 및 용역입찰에도 공사의 경우를 준용해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운용하게 된다.

한반도를 세계적인 해운센터로

해양수산부는 21세기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구상하는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은 한반도를 세계적인 해운센터화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반도의 해운센터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해운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제 및 관행의 정립, 해운관련 사업기능의 유치 육성, 선박의 매매, 용선, 중개, 선박금융 등 해운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운거대소의 설치와 첨단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여러 기능의 밀집과 이에따른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어야 하며, 장기계획에는 이러한 제기능 및 시설 등의 도입을 위한 방안 및 추진일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업계 단체, 해운산업연구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합동추진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외국의 사례, 우리의 현재여건 등을 분석함은 물론 용역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할까 지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그동안 우리 해운규모가 선박보유량 세계 8위, 해상교역량 세계 6위, 선박건조량 세계 2위 등으로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을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따른 우리의 해상물동량 증가 및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등 우리 해운의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세계 일류해운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든공사에 자유롭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58億3千만원 이상공사

國際入札에 부치기로

정부기관의 경우 42개 중앙행정기관의 5백만SDR의 원화 환산액인 58억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13만SDR(1억5천1백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을 국제입찰에 부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등 6개 시와 9개 도의 1천5백만SDR(1백74억9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20만

SDR(2억3천3백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을, 기타기관의 경우 23개 정부투자기관의 1천5백만SDR 이상 건설공사와 45만SDR(5억2천4백만원) 이상 물품을 개방해야 한다.

SDR(IMF의 특별인출권으로 국제결제 수단을 의미)의 원화 환산액은 최근 2년간 SDR에 대한 원화 환율의 평

地域制限입찰한도액 30억원으로 上向 장기繼續工事 中小업체참가機會 擴大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2년 20억원으로 책정했던 지역제한입찰의 한도액을 92년 3월 이후의 물가상승률 인건비 등의 지수변동률을 감안,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30억원 미만공사는 당해지역 소재업체만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는 설계시 전체사업내용을 일괄 확정된 후 장기계속공사를 발주하게 돼 있던 것을 발주관서가 당해공사의 특성예산사정 등에 따라 일괄설계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고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사업내용이 일괄 확정된 공사만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완료후 댓가지급청구를 받던 것을 검사 완료일까지 미리 청구를 받음으로써 댓가지급 소요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도록 했다.

적격심사기준 이원화

적격심사 대상이 1백억원 이상에서 58억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체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일반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을 1백억원 이상과 1백억원 미만 58억3천만원 이상으로 이원화 했다.

즉 1백억원 이상 공사는 기존심사기준을 이용하고 1백억원 미만 58억3천만원 이상 공사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 상공사이었던 점을 감안, 가격비중을 상향 조정해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각각 5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낙찰下限率 90%이상으로 上向

中小企業보호 순공사비 認定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대상 공사가 1백억원 미만에서 58억3천만원 미만으로, 용역은 10억원에서 1억5천1백만원으로 각각 축소되는 대신 낙찰하한율이 88%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낙찰하한율이 2% 상향조정된 것은 중소기업 보호 및 부실방지를 위해 순공사비 수준인 88%에 일반

관리비(약 4~5%) 중 현장 관리에 필수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10억원 미만의 물품제조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으나 개방대상금액인 1억5천1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낙찰하한율은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와 같이 90%로 통일했다.

지방업체 1개사 이상참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말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개방금액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

契約解止된 경우도 隨意契約 가능 기성대가支給期限도 30일로 短縮

지금까지는 공사계약체결 후 기한내 착수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체결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뿐만아니라 공사에 착수했다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제 해지된 경우에도 당초 조건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발주에 공사기간 및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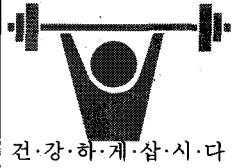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기성대가를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도록 했으나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성대가지급시 검사



어항어촌 종합개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朝興工管株式會社
- 正韓綜合建設株式會社
- 林光土建設株式會社
- 泳進建設株式會社
- 永生建設株式會社
- 株式會社宇洲綜合建設
- 世紀建設株式會社
- 新豐建設產業株式會社
- 信友建設株式會社
- 盛寶建設產業株式會社
- 株式會社成鎬綜合建設
- 株式會社새建設
- 三梧綜合建設株式會社
- 株式會社三洋
- 株式會社三建
- 株式會社百濟綜合建設
- 東和建設株式會社
- 東邦建設株式會社
- 東嶺建設株式會社
- 合資會社大韓土建設
- 大地綜合建設株式會社
- 株式會社大亞建設
- 株式會社大洋
- 南和土建設株式會社
- 南進建設株式會社
- 金光企業株式會社
- 光南開發株式會社



비만

식이운동 행동요법 병행해야
식초 식물성 식품 예방에 좋아

최근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비만도 질병이란 인식이 높아져 각별히 주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이 비만해지면 우선 체형에 변화가 오고 몸이 뚱뚱해져 보기가 흉하게 되는 반면에 민첩성 등 활동력이 떨어져 게을러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외모도 문제지만 같은 이같은 비만증에 의해 각종 성인병 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심하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어린 아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 성인병에 있어서는 고혈압 당뇨병 담석증 등의 증세가 올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라하면 표준체중보다 20%이상 넘을 때를 말한다. 여기서 표준체중이란 키(cm)에서 100을 뺀 값에 0.9를 곱한 값이다.

비만의 원인을 의학계에서는 내분비호르몬 이상이나 대사장애 등 내인성 요인과 음식물 섭취와 체내활용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외인성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어린이 비만 치료는 무조건 체중감소를 시키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도록 하는 원칙이래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여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하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심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른의 경우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되었을 경우 먼저 손쉽게 떠올리는 방법은 식사량을 줄이는 식이요법이 있다. 또 운동을 해서 체중을 빼는 운동요법과 길게는 일상의

생활태도를 고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체중을 줄이는 행동요법 등이 있다. 대개는 이 세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효과를 본다.

실제 살이 찐 사람들을 살펴보면 많이 먹어서 보다는 적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밥을 굶거나 양을 줄임으로써 체중을 줄인다 보면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근육이 감소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적당한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중조절을 운동요법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원칙이 있다. 비교적 가벼운 운동으로 걷기 천천히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 산 등을 꾸준히 해야하며 하루 15분에서 30분쯤 지속적으로 하되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으로는 식초류의 사과초나 와인(양주)초 또는 영양가가 없는 합성초 등이 비만 예방의 민간약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이들 식초안에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당질에서의 지방 합성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어 비만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비만 예방에는 과(양파)와 콩이 좋다. 파는 몸에 불은 군살의 지방분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고, 콩은 칼로리 흡수를 저지하여 비만 예방작용을 한다. 특히 콩에는 당분이 극히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콩밥이나 순두부찌개 등을 때때로 식사때마다 먹으면 비만증이 치유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녹차 울무차를 자주 마시거나 현미와 잡곡밥을 활용해도 좋다.

b. 말뚝식 방파제

말뚝식 방파제는 기초공(제3장 사석, 피복 및 밀다짐), 제체공(제9장 말뚝공), 상부공(제12장 상부공) 등의 공종으로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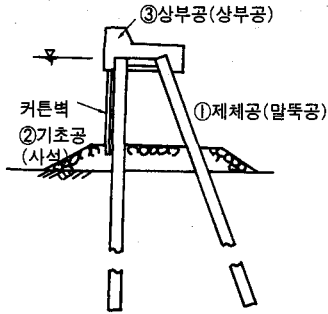


그림 1.3.3 커튼식의 공종구성

(2) 호안, 제방

① 기본적인 구조·형식

호안·제방의 기본적인 구조·형식을 그림 1.3.4에 제시한다. 호안과 제방의 차이는 물받이 천단이 배후지반에 대하여 높은 것을 제방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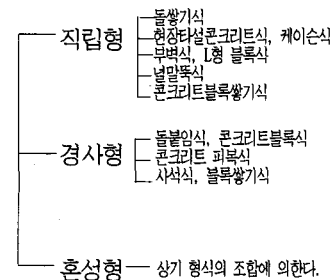


그림 1.3.4 호안·제방의 기본적인 구조 형식

第1章 漁港의 各種施設과 工種區分

(4)

②호안·제방의 공종

호안·제방은 기초공(제3장 사석, 피복 및 밀다짐), 제체공(제5장 콘크리트), 상부공(제12장 상부공), 물받이공(제16장 포장공), 배수공(제15장 배수공) 등의 공종으로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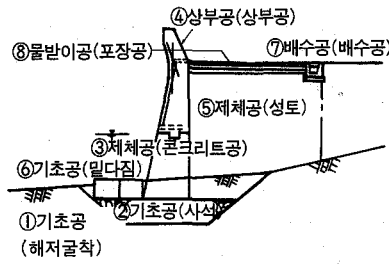


그림 1.3.5 호안의 공종구성

1.4 계류시설

(1) 안벽·물양장

① 기본적인 구조·형식

안벽·물양장의 기본적인 구조·형식을 그림 1.4.1에 제시한다. 또 그 구조는 그림 1.4.2와 같다. W.D.L.에 있어서의 전면수심이 -4.0m 이상의 것을 안벽이라 하고, -4.0m미만의 것을 물양장이라 한다. 그러나 이 양자는 기능상 또는 구조상 차이가 없고 간단차에 의한 천단고에 따라 벽체의 높이가 달라지므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또 계선안이라 할 경우는 계류시설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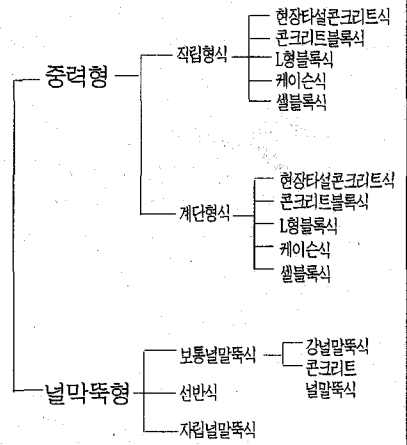


그림 1.4.1 안벽·물양장의 기본적인 구조 형식

②안벽·물양장의 공종

a. 중력형 안벽

중력형(콘크리트블록식) 안벽은 기초공(제3장 부석, 피복 및 밀다짐), 제체공(제7장 콘크리트블록공, 제11장 뒤채움공), 상부공(제12장 상부공, 제13장 부속공), 에이프런공(제16장 포장공) 등의 공종으로 구성된다.

b. 널말뚝식 안벽

널말뚝식 안벽은 제체공(제9장 말뚝 및 널말뚝공, 제10장 버팀공), 상부공(제12장 상부공, 제13장 부속공), 에이프런공(제16장 포장공) 등의 공종으로 구성된다.

인감증명의 의의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도,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교환, 증여, 상속포기할 때 등이다.

생활활정보

인감의 신고

인감신고 일반

인감신고란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청(거주지 동사무소 등)의 인감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감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려는 인감을 지참하고 증명청에 나가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 인감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외근무, 국내장기출타, 거동불능,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을 시키거나 서면으로 우송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자녀 또는 부부사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면신고(대리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자하는 증명청에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2인 이상 보증인의 연서가 필요하다.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증명청에 출원하여 인감대장의 특기사항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요청하거나 사진을 제출하여 인감대장에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원형, 타원형 또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가로 30mm, 세로 20mm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인감신고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외에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년시기는 민법상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한 미성년자가

인감신고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인감의 개인(改印)신고
신고된 인감의 분실 인영의 마멸, 기타 인감보호를 위하여 인장을 바꾸고자 하거나 인장의 마멸로 증명청에서 개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의 절차는 인감신고 요령과 동일하며 인장의 분실로 인하여 서면신고한 때는 그날로부터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한 때에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의 신청과 발급

인감증명 신청

인감증명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대리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출원하여 구두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의 교부매수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신청서에 인감 날인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제도

인감보호 받으려면 관할증명청에 본인 사진 제출

· 인감증명신청서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제시의 요구에 불응한 때

· 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할 때

· 최종주소지에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의 경우 이중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인감신고사항의 회보가 없을 때

유효기간

한 번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월로 되어 있다.

인감의 말소신청 및 직권말소

인감신고자가 그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는 신고자인 자신이 소관증명청에 직접 출원하여 말소신고하거나, 인감말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말소신고서에는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소관증명청에 출원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신고가 있을 때 증명청이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생활활정보